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현장실사 완료

- 4개 갯벌 확대등재...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2026년 7월)

해양수산부(장관 전제수)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9월 26일(금)부터 10월 1일(수)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II)」에 대한 국제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현장실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심사를 하며, 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 2단계」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심사를 받게 됨

지난 2021년 「한국의 갯벌 1단계」 등재 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보호·강화하기 위해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을 추가해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1단계 등재 때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에 대해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국의 갯벌 1단계(2021년 7월 31일 세계유산 등재):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한 현장실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 씨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관인 테레스 싱 베인스(Taras Singh Bains) 씨가 담당하였다.

실사단은 5일 동안 1단계 완충구역 확대 지역 중 보성·순천갯벌과 신규로 신청한 4개의 갯벌을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관리 담당자, 지역 주민,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다.

현장실사는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서류심사, 패널회의 등 세계유산 심사과정의 한 단계다.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및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최종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박선용 (044-200-5628)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인현 (042-481-4841)
		담당자	서기관 박지영 (042-481-4848)

